

결혼과 여성지위 - 의존적인 젊은 남녀의 결혼준비

무성한 혼수관련 잡음, 발원지는 부모의존

4월 말로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준비에 바쁜 진미경(29) 씨는 생전 처음 '효도'라는 기준 위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 신랑감이나 신부 진미경 씨나 평소에 부모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투로 살아온 편이어서 결혼식만은 부모님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고 생각한다.

호화혼수는 엄두도 내지 못할 입장인데다 양가부모들이 자녀들의 생각을 많이 따라주는 편이어서 다른 결혼보다는 한결 검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신랑신부는 자기들 뜻대로 '새롭게' 그리고 '의미있게' 혼인의례를 창조해 보고픈 욕망을 자제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무능력한 신랑신부의 떠밀려 가는 기분

신랑신부 모두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로 자유투로 예술적 감각을 중시하는 이 예비부부에게는 '창조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남들과 똑같은 것', 의미가 담기지 않은 형식은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돈이 있다면 자기를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데에, 또 자기를 강하게 표현해내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가의 부모들은 여느 부모들과 같이 '남들이 하는 것 다해 보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가치관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남들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들의 마음이다.

육신각신하던 끝에 이 신랑신부는 그들의 주장대로 예식장이 아닌 소극장을 식당으로 잡는 것 정도만 고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양가부모의 합의 사항에 따르기로 했다.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했는데 이번 한번만은...' 하는 효도 심리에서 나온 양보였다.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결혼식장 동시입장이 라든가 결혼서약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는 생략한다. 섭섭해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부는 입장할 예정이다. 양가부모 모두에게 폐백을 드리겠다는 신랑신부의 계획도 신부측 부모들이 불편해하는 심정으로 미루어볼 때 무산되거나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금반지 하나로 예물을 대신하고 예단도 부모님께만 하자는 희망사항도 "너무 섭섭하다"는 부모들의 마음에 밀려 2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신랑측 남매 전원에게로 확대되었다. 늘어난 예산을 아까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선택한 우선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이어서 '떠밀려가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생활보다 멋이 중요한 사람들

신부 진미경 씨는 "아마 우리 돈으로 결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비용이라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지면 꽤 다르게 쓸 거예요. 우리는 둘다 사진을 찍으니까 우선 사진 기자재를 마련할 거고 입을 옷이 부족하니까 평소에 입을 옷을 살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니까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어서 따라가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은 없으면서 자유로움을 고집하는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가치관이 몸에 배 있는 부모세대와 충돌을 보인다. 자유로워야 하고 평등해야 하고 독특해야 하고 멋있어야 하고.... 젊은 세대들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이 그림은 '먹고 사는' 생활 이상 절박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도 '어떻게 쌀을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식대로 멋지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으며 고민하는 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그림은 '먹고 사는' 생활 이상 절박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앞두고도 '어떻게 쌀을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식대로 멋지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으며 고민하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의 고민과 욕구는 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의 우리 젊은 세대들의 꿈과 고뇌는 기성세대의 경제력에 의존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변화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젊은 한때의 꿈'으로 쉽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나 미개한 나라의 해외토픽 감으로 손색이 없는 혼수시비는 자기능력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기에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집 사는데 돈 보태기 자존심 상해

결혼이 두 집안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당사자끼리라면 의견갈등도 조정할 기회가 많지만 자식들에 의해 '사돈'이라는 어려운 관계로 만나야 하는 두 집안은 자존심과 체면을 보이지 않게 저울질해야 한다. 예전처럼 혼례식의 모범답안도 없어진 터여서 혼주가 되는 두 집안은 더욱 신경이 쓰인다.

5월에 결혼날짜를 잡아놓은 이은정(30. 동작구 사당동) 씨는 집을 구하려 다니면서 무척 속이 상한다. 신랑집과 돈을 합쳐서 전세집을 구하려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 짜증스러운 것이다. 신랑집에서는 홀시어머니와 동거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이은정 씨는 시집살이가 싫어서 '장남도 아닌데'라는 이유를 강조하며 1년을 넘게 분가를 고집해왔다. 분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신랑집이 있는 안양 근처에 집을 얻으라는 제의가 있었다.

여자=혼수, 남자=집장만이 당연한 요즘 여성들

이 씨는 그것도 거절했다. 이 씨의 직장과 너무 멀다는 이유였지만 친정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빠른 돈을 들고 신혼집을 구하려 다닌다. 이들의 어려움이 전해질 때마다 시집에서는 집값이 싼 안양에서 살림을 차리라고 재차 권유해온다. 그러나 이 씨는 친정근처 동네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넓은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포기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돈은 더욱 적게 느껴진다.

이 씨의 어머니도 내 딸이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고생인가 하는 생각에 속상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 씨 역시 자기의 결혼으로 어머니가 상심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

시집살이가 싫고 남자와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젊은 여성들도 여자가 혼수를 장만해

야 하는 대신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혼수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집을 마련하는 문제는 요즘 결혼문화에서 부쩍 신경 거슬리는 문제로 등장했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에 대해서 남자들은 불만이다.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영국(31. 출판업) 씨는 여성들의 평등의식이 이기적이라고 불평한다.

남자들의 계산은 다르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에게 돈도 있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정의감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평등하게 살고 싶으면 부담도 나눠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집안문제가 개입되고 나면 여자들은 기존의 여자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수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하고 남자가 동의를 해주면 절약된 비용을 집 장만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남자 쪽에서 먼저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여자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면 좋은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선 처가집과 돈을 합쳐서 집을 마련하더라도 여자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 즉 남자 명의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가 오간다고 한다. 여자집의 입장에서 집 사는데 돈을 보탠다고 해도 소비적인 혼수품을 장만하는 비용을 여자측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공동명의로 아닌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탠다면 남자측은 그야말로 거저 장가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결혼 당사자들이 경제력을 갖추기 힘든 현실 속에서 갖가지 꿈을 부풀리고 있는 젊은 남녀들은 각기 아전인수격으로 계산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여자들의 머리속에는 시집에서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 친구들의 모델이 들어 있고 남자들의 머리 속에는 처가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순종적인 내조를 해주는 아내를 만난 운 좋은 친구들이 이상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각자가 이 현실에서 가능한 최상의 모델을 펼쳐버리려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결혼문화 변화 실마리 경제력 갖추기부터

젊은 세대들이 자기 힘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부모세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여성들의 운신의 폭을 좁여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기성의 문화는 분명 젊은 세대들의 문화보다 여성의 삶을 더 많이 제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여성들의 결혼이 경제능력 있는 여성과 세대의 기준으로는 한 급 떨어지는 신랑감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기존의 자기이득을 양보하는 데에 인색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결혼문화의 모델을 창조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준비를 하면서야 겨우 "나도 이제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진미경 씨의 경우는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감각이 얼마나 뒤늦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의 교육과 경제구조 속에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다. 젊은이들의 발을 땅에 단게 만드는 문제는 매년 결혼 성수가 되던 만나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젊은 남녀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 때 결혼문화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기자)

